

God's church, God's way - 1st Timothy 6 – Sermon Notes

Title: “1st Timothy 6”

Scripture: 1st Timothy 2:8-15

Date preached: August 17th 2025

Scripture: 1st Timothy 2:8-15

8 I desire therefore that the men pray everywhere, lifting up holy hands, without wrath and doubting; 9 in like manner also, that the women adorn themselves in modest apparel, with propriety and moderation, not with braided hair or gold or pearls or costly clothing, 10 but, which is proper for women professing godliness, with good works. 11 Let a woman learn in silence with all submission. 12 And I do not permit a woman to teach or to have authority over a man, but to be in silence. 13 For Adam was formed first, then Eve. 14 And Adam was not deceived, but the woman being deceived, fell into transgression. 15 Nevertheless she will be saved in childbearing if they continue in faith, love, and holiness, with self-control.

8 그러므로 각처에서 □□□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9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써 자기를 단정하고 땡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10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11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12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13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14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15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Review

Very shortly we will continue on from where we left off last time in our examination of 1st Timothy. However before we do that lets take a few moments to refresh our memories from last week.

Last time we looked at verses 18-20 of chapter one, and the first 7 verses of chapter 2. Chapter one concludes with Paul offering Timothy some words of encouragement. As we have previously noted by nature he was a rather timid and sickly man. Paul knew however that with God on his side he would succeed in his mission.

His mission was two-fold. Firstly, he was to put a stop to the false teaching that was going on in Ephesus. Certain individuals armed with their speculations, and idle talk were distracting people away from the one true gospel. Secondly, he was to ensure that the church was being managed in an orderly way. We do not serve a God of chaos and confusion. As we read in Paul's 1st letter to the Corinthians,

For God is not *the author* of confusion but of peace, as in all the churches of the saints. (1 Cor 14:33)

And how about the following.

Let all things be done decently and in order. (1 Cor 14:40)

So Timothy, as Paul's official representative or overseer was to ensure that the church ran and operated in a way that Jesus Christ (the head of the church) would find pleasing.

We also learned from our studies last time that prophecies had been made in regard to Timothy. A

specific time frame is not given for when this occurred. It seems that prophets in the church had spoken good things about Timothy. Paul reminds him of this fact and encourages him to be ready to fight the good fight.

Anyone standing firmly upon God's truth sets themselves up as a target. Satan and those who work for him love nothing better than to attack and destroy Christian leaders. In order to endure and succeed Timothy would need to cling desperately to his faith. He must ensure that no matter what attacks came against him, that he maintained a good and godly disposition. He must listen to, and heed his conscience. His enemies in the church would probe for any way that he could be criticised or condemned for his actions or words. Timothy must stay strong and trust God to guide his words and behaviour.

Paul then goes on to mention two men from Ephesus who had not clung to their faith. The two men (Hymenaeus and Alexander) in question had allowed their desire to be seen as “someone special” in the church to shipwreck their good and godly witness. Sadly we still see this occur today. Churches have been seriously damaged, and sometimes destroyed by leaders who have become puffed up by pride. Men who begin to think that people come to church to hear them speak. Leaders who think that they should be the centre of attention. The role of a pastor or elder in the church is actually incredibly simple. Point people to Jesus Christ. That's it. Remember that you are nothing, and He is everything. If you keep that mantra in mind you are on a solid foundation.

Paul tells us that he handed these men over to God to discipline. That discipline would be administered through the agency of Satan.

We then began chapter 2. The chapter begins with Paul reminding Timothy, and us of the importance of prayer. Prayer is to be our number one priority. It is not to occupy a place lower down on our lists of things to do. He also reminds us that our prayers are not to be one dimensional. We are not only to pray for the things we want to the exclusion of all other things.

Paul mentions four different kinds of prayers that we should employ. We can pray for the things we NEED, but we should also pray for the needs of others. Prayer should also be seen as a way of worshipping and honouring God. We should also pray to thank God for His goodness and grace. God has blessed us all in so many ways. We must never neglect to say thank you.

When it comes to praying for others we are commanded to pray for all men. As we noted last time Paul means that we are not to be limited in the scope or scale of our prayers. All kinds of people, from every level on the social spectrum ought to be included in our prayers. Naturally we should include those at the top, our leaders. This embraces not only leaders in the church, but also regional and national government leaders, as well as kings or queens where appropriate.

In Paul's day this meant praying for the Roman emperor. When this letter was penned it was the insane Christ hating Nero on the throne. Given that his man was actively persecuting Christians at this time I'm sure that the Ephesians were not greatly disposed to pray for him. But Paul encouraged those in Ephesus to include him in their prayers.

There is a very good reason for this. We pray for our leaders because our hope is to live quiet and peaceful lives. We want to be free to worship God and obey His commands without the fear of harassment and persecution. Therefore praying for those in authority over us is pleasing to God.

Paul then went on to present Timothy with some important truths. He was to take these to heart and also teach them to the church. These essential truths are as follows. God desires that all men be saved. He wants human beings to come to understand the truth, and in doing so turn to Him. He is then generous and merciful to save. Salvation comes only through the person and work of the Lord Jesus Christ. The only way to reach the Father is through Him. In this regard He is the mediator. The one sent to settle the “dispute” and bring about reconciliation. Jesus through the ransom (or the

payment) He paid with His sacrifice upon the cross bridges the sin chasm that separates us from God. This is the truth that Paul was commissioned to preach. It has not changed in the past 2000 years. As followers of Christ today we too are called to present this truth to a lost and desperate world.

Today we are going to look about what God has to say about men and women in the church.

오늘도 지난주에 끝마쳤던 부분부터 계속해서 디모데전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지난주 내용을 되새겨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1 장 18-20 절과 2 장 1-7 절을 살펴보았습니다. 1 장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격려의 말로 끝맺습니다. 디모데는 성품이 소심하고 병약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디모데가 사명을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을 알았습니다.

디모데의 사명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에베소에서 행해지던 거짓 가르침을 중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이 추측과 헛된말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참된 복음에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둘째, 교회가 질서 있게 운영되도록 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혼돈과 혼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한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고전 14:33)**

모든 일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고전 14:40)

따라서 바울의 공식 대표이자 감독자인 디모데는 교회의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교회가 운영되도록 해야 했습니다.

또한 디모데에 대한 예언이 있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예언이 언제 일어났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의 선지자들이 디모데에 대해 좋은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사실을 상기시키고 선한 싸움을 싸울 준비를 하라고 격렙니다.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는 사람은 누구나 표적이 됩니다. 이 표적이 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좋습니다. 디모데가 인내하고 성공하려면 자신의 믿음에 절대적으로 매달려야 했습니다. 어떤 공격이 닥쳐와도 선하고 경건한 성품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양심에 귀 기울여야 했습니다. 교회 안의 반대자들은 그의 행동이나 말에 대해 비난할 어떤 것이라도 찾을 것입니다. 디모데는 강인함을 유지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말과 행동을 인도하실 것을 신뢰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믿음을 저버렸던 에베소 출신의 두 사람을 언급합니다. 문제의 두 사람 (후대내오와 알렉산더)은 교회에서 "특별한 사람"으로 보이려는 욕망 때문에 선하고 경건한 증인이 되는 것을 저버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심각한 손상을 입고 때로는 교만한 지도자들 때문에 파괴되기도 합니다. 자신은 관심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지도자들 말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의 역할은 사실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며, 예수님이 전부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명심한다면 당신은 건교한 기초 위에서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 징계는 사탄이 대신하여 집행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2 장에서 바울은 디모데와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면서 시작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해야 할 일 목록에서 하위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됩니다. 그는 또한 우리의 기도가 일차원적이어서

서는 안 된다고 일깨워 줍니다. 다른 모든 것을 제껴두고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위해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네 가지 기도 방식을 언급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또한 하나님을 경배하고 공경하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많은 면에서 축복하셨습니다. 감사하는 것을 결코 소홀히 하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기도의 범위나 규모에 제한을 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 □□□□ □□ □□□□□□ □□□□ □□□□ □□□□ . 당연히 최고위층, 즉 지도자들을 포함해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가 정부 지도자, 경우에 따라 왕이나 여왕도 포함됩니다. 바울 시대에 이것은 로마 황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서신이 쓰였을 당시에는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마차공이 네로가 황제였습니다. 당시 그의 부하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극도로 박해하였으므로 에베소 사람들은 그를 위해 기도할 마음이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그를 기도에 포함시키도록 권했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괴롭힘과 박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다스리는 권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디모데에게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전했습니다. 그는 이 진리들을 명심하고 교회에도 가르쳐야 했습니다. 이 핵심 진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진리를 이해하고 그분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관대하고 자비로우셔서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구원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만 옵니다. 아버지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뿐입니다. 이 점에서 그분은 중보자입니다. "불화"를 해결하고 화해를 이루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의 희생으로 지불하신 대속물 대가를 통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죄의 구렁텅이를 메우십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파하도록 부름받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지난 2000 년 동안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 또한 길을 잃고 절망에 빠진 세상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교회 안의 남녀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8 I desire therefore that the men pray everywhere, lifting up holy hands, without wrath and doubting;

This verse concludes a section on prayer in Christian worship which began back in verse 1. We should read it therefore as being a continuation of the first seven verses of this chapter. So in light of all that Paul has just said about prayer he desires that men everywhere pray. The word Paul uses here is the Greek word *andras*. It refers to men. It is not a general term like “mankind” meaning “people.” So it is “men” he is calling to pray **everywhere**. The “everywhere” refers not to all places, but rather to everywhere people gather to worship and praise God. Paul uses this term four times in his letters and on each occasion it means a church gathering. In such settings it is men who are to lead the prayers.

I said in my introduction that there may be parts of this epistle that may cause offence to some. This is the first occasion. I hope that you won't be offended. Paul was God's inspired messenger. He recorded what God wants for His church. It does not matter that what Paul says goes against what many believe and teach today. Sadly many churches have lost their way in their desires to appease modern sensibilities. Our concern must always be with what God wants, not what culture wants. Culture shifts and morphs over time, God remains unchanging. This is His church and we are called to obey His commands. So let's dig into the text and discover what God wants.

Different commentators have differing opinions about what Paul meant here. Some think that Paul

is addressing a particular issue that had arisen in some of the churches at that time. Basically what had happened was that prayer was being delegated to others, particularly women in the church. It was seen by some as being less important than preaching or teaching. Therefore the duty of praying had been handed over to women. Paul then is rebuking this kind of thinking. Prayer must never be disregarded or relegated in importance. Prayer is a priority in the church and therefore men (the church leaders) ought to take the lead when it comes to praying in church.

Other commentators are a little more hard-line. They argue that Paul is issuing a command here that prohibits women from praying in formal worship settings. Now, please note that Paul does not discourage women from praying in other situations. It's not a prohibition against women praying. In fact, he positively encourages women to pray in some of his other letters (see 1 Cor 11:5, 11:13, Col. 4:2, 1 Thess 5:17). So in private gatherings, or women only prayer groups Paul has no issue with women openly praying. But they are not to lead the prayers in church. This is not because they are in some way “spiritual inferior” to men. Men and women are equal in this regard. Instead, it relates to the God ordained roles that God has put in place for men and women within the church.

Now you may be thinking that this is a little unjust. So let me give you something else to consider. During the worship service not all men are permitted to speak. Only those who have been called and gifted are given a platform to speak. Is that also unfair or unjust? Most would say not. The pulpit should only be occupied by qualified men. God after all wants the church to operate in an ordered way.

Paul then goes on to address the attitude in which this prayer should be offered up to God. He emphasises the importance of inner holiness reflected through outward behaviour. The lifting or raising of hands as a symbol of worship has a long tradition for God's people. It was the accepted posture of prayer for the Jews, and was adopted by many in the early church. Paul however is looking beyond the bodily posture we adopt when we pray. The position in which we pray is really of little importance. Obviously we should be respectful in the way we pray. But what is of much more importance is the purity of our lives and the manner in which we come to prayer.

The “**hands**” here symbolize the activities of life. We are to approach God in prayer as we try as best we can to live exemplary holy lives. Church leaders whilst not expected to be perfect should be living good God pleasing lives. Their nature and character should not be bound up in feelings of bitterness and anger. We do not want men leading us in prayer who harbour feelings of anger or bitterness against someone else. Neither should they be men of uncertainty and doubt. We want men of courage and conviction to lead the church in prayer.

Let us read on.

8 그러므로 각처에서 모든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 구절은 1 절에서 시작된 크리스천 예배에서의 기도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합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1-7 절의 연장선으로 읽어야 합니다. 바울이 방금 기도에 대해 말한 모든 내용을 고려할 때, 그는 모든 이 각처 everywhere 에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여기서 사용한 단어는 헬리어 *안드라스 andras* 입니다. 이는 모든 men 을 지칭합니다. "모든 people"을 의미하는 “인류mankind” 같은 용어가 아닙니다. 따라서 바울은 "모든"에게 **각처에서 everywhere** 기도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각처everywhere"는 모든 장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든 곳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이 용어를 네 번 사용했는데, 매번 교회 모임 church gathering 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남자들이 기도를 인도해야 합니다.

서론에서 이 서신의 일부 내용이 어떤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이 첫 번째입니다. 기분 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감받은 메신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위해 원하시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바울의 말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고 가르치는 것과 어긋나도 상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현대인의 감성을 만족시키려는 욕망에 사로잡혀 방향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인간 문화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문화는 시간이 흐르면서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

As we have noted on many other occasions what most concerns God is our inner motivations. Are we really motivated by the thoughts of honouring God and wanting to praise Him? Or are we more worried about being seen and admired by others?

That is really what lies at the heart of what Paul is speaking about here.

Paul's point throughout the following verses is that "good works" that express godly character should characterize Christian women more than the way that they dress and groom themselves.

Paul begins here with the expression "**In like manner.**" He is connecting the behaviour of the men he has just addressed; godly and holy, with the women of the church. He commands that they too strive to behave in a holy and God pleasing manner.

The first item on the agenda is that of attire. This means clothing, but also includes cosmetics, jewellery and hair. Women in the church are to dress modestly. They are to dress and arrange themselves in a nice, tasteful and respectable way for church or church functions. The key concept here is moderation or dressing appropriately. We do not want to be either, over or under dressed, but somewhere between these two extremes. What exactly this consists of varies from culture to culture, and place to place. What people wear to church in Kenya is different to church goers in Alaska. Here in Korea most women are conservative and demure when it comes to what they wear to church.

However I did once attended a church in which a young woman in her early twenties came very unsuitably dressed. She was an attractive young lady and liked to wear very short skirts and low cut tops. If I noticed it then you can bet that other men noticed it too, and their thoughts were probably diverted from the bible passage of the day. Such attire is simply not appropriate for church.

I should add here that men too are expected to dress appropriately. Figure hugging pants or skin tight T-shirts that show off your bulging muscles are not the things to wear to church.

Now this is not necessarily a ban or prohibition against wearing nice quality clothing or branded goods. There is a place for nice well tailored clothes, jewellery and fancy haircuts. But the great danger is that the person wearing such things is desiring the adoring attention of others. Such items can easily become attention drawing magnets that distract people away from the real purpose of being in church. So, as I mentioned before it's the inner heart motivation that Paul is addressing. Are you dressing nicely in a prideful way? Do you want people to be looking at you and being impressed? Or are you dressing nicely in order to present yourself in a pleasing way before God?

Paul then turns to the issue of hairstyles. It's not much of an issue for me. I've maintained the same hairstyle for the past 20 years! He emphasises that Christian women are not to have braided hair. What's wrong you are probably asking with braided hair. We should remember that Paul was writing to address specific concerns within the church in Ephesus. So although there are some broad general principles here some of what he says applied to people living in that setting.

It was the custom at that time for wealthy women to weave golden trinkets, pearls and other jewels into their hair. I am sure that the finished product looked spectacular. This was done in order to call attention to their wealth or status. Look at me! I'm a woman of wealth and privilege! I'm so much better than you! So again it's the inner heart motivation that Paul is focused upon.

When it comes directly to the issue of braided hair we are also speaking of a hairstyle that took a great deal of time and effort to accomplish. Today I suppose it might be the equivalent of getting a fancy manicure or pedicure. Paul is questioning whether such an expenditure of both time and money is really warranted. Is it really the best way to use the resources God has blessed you with? The several hours spent having your hair style perfected could better be spent in prayer, bible study or helping the needy.

Another way women in Paul's day flaunted their wealth and drew attention to themselves was by wearing costly garments. It's not so different today. If you come to church in a designer dress, carrying a Prada bag, or wearing a Rolex watch people will notice.

The expensive dresses worn by wealthy women in Ephesus could cost up to 7,000 denarii. Let me put that into perspective. The daily wage for a Roman legionary in the New Testament era was one denarii. Obviously highly skilled people such as doctors, lawyers and architects would earn much more. But 7,000 denarii was a huge sum it's the equivalent of around 30,000 US dollars today. That's one expensive dress!

Even the dresses worn by the common women could cost as much as 500-800 denarii. Because dresses were so expensive most women probably owned only two or three nice dresses in their lives. So for a wealthy woman to enter the worship service wearing an expensive dress would naturally shift the focus of attention to her. Everyone would be admiring her beautiful, and expensive dress. It could easily stir up jealousy from the poorer members of the church.

So let's sum up Paul's message. Worship services are special. They are not to be seen as an occasion to show off, or dress to impress. So women were to think very carefully about what they wore, and more significantly what motivated them to make that clothing choice. Is the choice the woman made intended to show the grace and beauty of womanhood? Is it to show her love and devotion to her husband and family? Or is it to reveal her humble heart to God? These are all good motivations.

Or, is the clothing choice designed to boast of wealth and status? Is it intended to show off, or flaunt her beauty? Is it an attempt to be sexually attractive to men? These are motivations that have no place in the church.

Paul's point is as follows. A woman who focuses on worshipping God will consider carefully how she is dressed, because her heart will dictate her wardrobe and appearance. Any women who profess to love God and a desire to live a God pleasing life will dress an act in a way that supports her profession of faith.

9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써 자기를 단정하고 땅은 마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10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저는 영국 국교회에서 지냈습니다. 일요일 아침 교회 갈 준비를 할 때 가장 좋은 옷 "Sunday best"을 입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셔츠와 넥타이를, 어머니는 정장을, 여동생과 저는 깔끔하고 단정하면서도 좀 불편한 옷을 입었습니다. 교회에서 돌아와 더 편한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 정말 좋았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자면, □□□□ □□□□ 처러입은 것은 옳고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예배드리러 갑니다. 예배는 엄숙하고 특별한 경우이므로, 옷차림을 소홀히 하거나 외모에 신경 쓰지 않는 것으로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걸모습이 사람의 내면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옷차림이 다소 지저분하고 단정하지 못해도 매우 좋은 □□□□ □□□□. 마찬가지로, 최고급 아르마니 정장을 입은 사람도 무례하고 자기중심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언급했듯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우리의 내면적 동기입니다. 우리의 동기가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고 찬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칭찬받는 것에 더 관심이 있습니까?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경건한 성품을 드러내는 "선행 good works" 이 옷차림과 몸단장보다 더 중요한 크리스찬 여인들의 특징임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와 같이** In like manner" 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방금 언급한 경건하고 거룩한 남성들의 행동을 교회의 여성들과도 연관짓습니다. 그는 여성들도 거룩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노력하라고 명령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복장입니다. 이는 옷차림을 의미하지만, 화장품, 장신구, 헤어스타일도 포함합니다. 여성들은 단정한 복장을 해야 합니다. 교회나 교회 행사에 참석할 때는 단정하고 품위 있으며 예의 바른 옷을 입고 단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절제, 즉 적절한 옷차림입니다. 너무 과하거나 부족하거나, 이 두 극단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중간을 말합니다. 물론 옷차림은 문화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케냐인들이 교회에 갈 때 입는 옷은 알래스카 신자들 과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교회에 갈 때 보수적이고 정숙하게 차려 입습니다.

하지만 저는 20 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 매우 부적절한 복장으로 교회에 온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매력적인 젊은 여성이었고, 매우 짧은 치마와 가슴이 깊게 파인 상의를 입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알아차렸다면 다른 남자들도 분명 그것을 알아차렸을 것이고, 그들은 그날의 성경 구절에 집중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복장은 교회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 □□□ □□□ □□□ □□□. 근육질 몸매를 드러내는 몸에 딱 달라붙는 바지나 티셔츠는 교회에 입고 갈 만한 옷이 아닙니다.

물론 고급 의류나 명품을 입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멋진 맞춤 정장 장신구, 화려한 헤어스타일이 어울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계해야 할 위험은 그런 옷을 입는 사람들이 보통 다른 사람들의 열렬한 관심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옷차림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 당겨 교회에 가는 진정한 목적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면의 동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뽀뽀하고 멋진 옷을 입습니까? □□□□□□ □□□□□ □□□□□□□□□□?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려고 멋지게 옷을 입습니까?

바울은 이어서 헤어스타일 문제로 넘어갑니다. 저에게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지난 20 년 동안 똑같은 헤어스타일을 유지해 왔으니까요. 바울은 그리스산 여성은 머리를 땅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대체 땅은 머리가 왜 문제인지 궁금하시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 내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이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이 몇 가지 있지만, 그가 말한 내용 중 일부는 특별히 에베소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당시에는 부유한 여성들이 금 장신구, 진주, 그리고 다른 보석들을 머리에 엮어 땅은 머리가 관습이었습니다. 완성된 머리는 분명 화려했을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부나 지위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 □ □□□□ □□□ 누리는 여자야! □ □□□□ □□ □□! 다시 한번 바울이 집중하는 것은 내면적인 마음의 동기입니다.

여인들의 땅은 머리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는 헤어스타일입니다. 오늘날 화려한 매니큐어나 페디큐어를 받는 것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그렇게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원을 잘 활용하는 방법일까요? 헤어스타일을 완벽하게 다듬는 데 드는 몇 시간은 기도, 성경 공부, 또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바울 시대의 여성들이 부를 과시하고 주목을 끌었던 또 다른 방법은 값비싼 옷을 입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명품 옷, 프라다 가방, 롤렉스 시계를 차고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눈여겨볼 것입니다.

에베소의 부유한 여성들이 입었던 값비싼 드레스는 최대 7,000 데나리온에 달했습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신약 시대 로마 군병의 하루 임금이 1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의사, 변호사, 건축가처럼 고도로 숙련된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벌었겠죠. 7,000 데나리온은 엄청난 금액으로,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3 만 달러에 해당합니다. 정말 비싼 드레스입니다.

평범한 여성들이 입었던 드레스조차도 500~800 데나리온에 달했습니다. 드레스 가격이 너무나 비싸서 대부분의 여성들은 평생 예쁜 드레스를 두세 벌 정도만 기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여성이 비싼 드레스를 입고 예배에 참

석하면 자연스럽게 그녀에게로 관심이 쏠릴 것입니다. 모두가 아름답고 값비싼 드레스에 김탄했을 것입니다. 교회 안의 가난한 교인들이 질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메시지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배는 특별합니다. 과사하거나 잘 보이기 위한 옷차림을 할 기회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성들은 무엇을 입을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어떤 동기로 그 옷을 선택했는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선택한 옷차림이 여성으로서의 우아함과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까? □□□□□ □□ □□□□□ 을 보여주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까? 이것들은 좋은 동기입니다.

혹은 그 옷차림이 부와 지위를 과사하기 위한 것일까요? 아름다움을 과사하기 위한 것일까요? □□□□□□□□□ □□ 력적으로 보이기 위한 것일까요? 이러한 동기는 교회 안에서 용납될 수 없습니다.

바울의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집중하는 여성은 자신의 옷차림을 신중하게 고려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마음이 옷차림과 외모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산다고 고백하는 여성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옷을 입을 것입니다.

11 Let a woman learn in silence with all submission. 12 And I do not permit a woman to teach or to have authority over a man, but to be in silence.

Paul moves from the topic of a woman's appearance to deal with the issue of how women should conduct themselves in a worship setting in which both sexes were present. Please note that the context of these verses is a formal worship service. Paul is not addressing women in the work-place, or in the home.

This is seen as a very controversial subject these days and much has been written and said on the subject of the role and place of women in the church. Basically in the church today we have two opposing positions. Complementarianism and egalitarianism. Complementarianism is the view that God restricts women from serving in church leadership roles. Only men can have authority in the church. Women can however serve in complementary roles.

Egalitarianism is the viewpoint that there are no biblical gender-based restrictions on ministry in the church. Women can do whatever men can do. I believe that the egalitarian position is not supported by scripture.

Paul has been accused by some of being a crusty old bachelor who hated women. He was a bitter and anti-women they claim because no one would marry him. I don't believe this to be the case. I don't think that Paul hated women, or thought they were inferior to men. As I have highlighted on a number of occasions Paul is writing under God's command. He is penning this letter under apostolic authority. You might not like what Paul is writing, but he is only echoing what God is telling him. This is what He wants for His church.

He begins by saying that in a learning environment in church women are to be quiet. They are to learn in silence and submission. What does it mean by, “learn in silence.”

I don't think that Paul is suggesting that women are not permitted to ever make a sound in church. What he is speaking about here is an attitude of heart and mind. He does not mean for women to keep absolute silence, otherwise how could a woman sing praises to God, confess Christ, or proclaim the amen! Rather what he is talking about here is a thoughtful and respectful attitude during times of teaching.

Women are to listen attentively, and much more importantly are not to argue or to enter into contentious debates about things. This is because they are to willingly submit themselves to the male leadership within the church. Please note that it is submission and not subjugation. Subjugation refers to the forcing of someone to comply. To submit means to willingly make a decision to comply. What Paul is really addressing here is the order that God has put in place within the church. To submit literally means “to rank under.” Rank has to do with order and authority and not necessarily with value or ability.

The best way to think of this is by applying it to the military. In the military a colonel is of a higher rank than a private. The colonel, due to his position (rank) has more authority than the private. But that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the colonel is a better man than the private. God has determined that men, not women are to be the leaders in the church. It's a matter of order and authority not value or ability.

How sexist, and unfair you may claim. But consider this. In the ancient world women were excluded from most educational establishments. First-century Judaism certainly did not hold women in high esteem. Most rabbis refused to teach women. One even said that trying to teach women was akin to throwing pearls to swine. It wasn't even as if women could just sit quietly at the back, they were not allowed to attend at all.

Greek culture was not much better when it came to the treatment of women. This is what William Barclay records in his commentary.

“The respectable Greek woman led a very confined life. She lived in her own quarters into which no one but her husband came. She did not even appear at meals. She never at any time appeared on the street alone; she never went to any public assembly.”

So what Paul is advocating was progressive for his day. Women should be able to attend, they have a right to learn as do men. It would in fact be wrong to deprive them of this necessity. How could they mature in the faith and raise godly children without this knowledge.

As I noted before Paul is responding to a situation that was occurring in Ephesus. Some claim that Christian women were reacting angrily to their suppressed situation and were rebelling by being loud and disruptive in times of teaching.

Other scholars think that the sexes were separated in the church. Men were on one side and women on the other. During the time of teaching if a woman was confused or puzzled by something she would shout across the divide to her husband. Obviously such a practice disturbed and annoyed everyone else and interrupted the teaching. Women then were called upon to listen quietly and respectfully. If they had a question or issue they were to ask their husbands later at home.

We come now to yet another controversial subject. It is the admonition about women teaching and having authority over men within the church. I know some hearing this will be bristling with indignation. So let's unpack what Paul (God) has to say.

Let me reread Paul's word; **I do not permit a woman to teach or to have authority over a man.** This is authoritative language. It is not a recommendation or a suggestion. It's an order. Women are not to teach (be a teacher) of men in the church. It really is that simple. If they are called and gifted in teaching they can instruct other women, and children but not men. So it's not a complete ban on women teaching. The bible records the teaching exploits of several notable women.

We could cite Priscilla (Acts 18), the teaching role of older women mentioned in Titus (chapter 2) and Timothy's own mother Eunice and grandmother Lois. But please note that the instruction these women gave was in private and not in the church.

Many in the modern liberal churches of today disagree with Paul's stance. Contemporary western culture argues that there should be equality everywhere. Therefore many denominations see no problem with having women pastors, elders and teachers. They wilfully go against Paul's order not to permit women to have authority or “lord it over” men in the church. In order to justify this they have to twist or distort scripture to mean something it never originally intended.

Over the years I've heard all the arguments. Some of the common ones are that there are too few men wanting to take up the role. Perhaps this is a shameful reality in some churches. If this is the case then men need to be encouraged to step up. A male pastor could lead several churches until such time as suitable men were trained and readied. Some argue that women are talented and gifted therefore it's a waste not to use their gifts. I agree that their gifts should be utilised. They can lead children's church and women's groups.

Again let me reiterate that spiritually speaking men and women are equal in God's sight. God doesn't favour men over women. Let me give you proof.

There is neither Jew nor Greek, there is neither slave nor free, there is neither male nor female; for you are all one in Christ Jesus. (Gal 3:28)

Priority, as in God determining that men are to be the head of the church and home does not signify superiority. Let us read on and see why God put this prohibition against female leadership in the church in place.

11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12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권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바울은 여성의 외모라는 주제에서 벗어나 남녀가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서 여성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언급합니다. 이 구절의 맥락은 공식적인 예배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직장이나 가정에서의 여성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매우 논쟁적인 주제이며, 교회에서 여성의 역할과 위치에 대한 많은 글과 논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상반된 견해인 상호 보완주의(Complementarianism)와 평등주의(Egalitarianism)가 있습니다. 상호 보완주의는 하나님께서 여성이 교회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는 것을 제한하신다고 봅니다. 교회에서 권위는 남성에게만 주어지고, 여성은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견해입니다.

평등주의는 교회 사역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성경적인 제한이 없다는 관점입니다. 여성도 남성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성경이 이러한 평등주의적 견해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바울이 여성을 미워하는 까칠한 노총각이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여성도 바울과 결혼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여성을 혐오하고 적대했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여성을 미워했거나 그들이 남성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듯이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그는 권위를 가지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의 글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는 단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반영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원하시는 바입니다.

바울은 교회에서 배울 때 여성들은 조용히 배우라고 말하며 시작합니다. 그들은 침묵(silence)과 순종(submission)으로 배워야 합니다. "조용히 배우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는 여성들이 교회에서 일체 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마음과 정신의 태도입니다. 여성들이 절대 침묵을 지켜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여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이면을 외칠 수 있었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배우는 동안 시려 깊고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여성들은 주의 깊게 들어야 하며, 더 중요한 것은 논쟁하거나 논쟁적인 토론에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여성들이 교회 내 남성 리더십에 가까이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순종(submission)이지 종속(subjugation)이 아닙니다.

종속(subjugation)은 누군가에게 복종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종(submission)은 스스로 가까이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진정으로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정하신 질서입니다. 순종(to submit)은 문자 그대로 "아래에 두다(to rank under)"는 뜻입니다. 그러한 서열은 질서와 권위와 관련이 있으며, 가치나 능력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예가 군대입니다. 군대에서 대령은 일병보다 계급이 높습니다. 대령은 자신의 지위(계

니다. 어쩌면 일부 교회에서는 이것이 부끄러운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남성들이 나서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적합한 남성들이 훈련받고 준비될 때까지 남성 목사는 여러 교회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능과 은사를 가진 여성들이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낭비라고 주장합니다. 저도 그들이 은사를 활용해야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단 여성들은 어린이 교회와 여성 모임을 이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 남성과 여성은 하나님 보시기에 동등합니다. 하나님은 남성을 여성보다 더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리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궤역하거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갈라디아서 3:28)

하나님께서 남성을 교회와 가정의 머리로 정하신 것은 우선순위priority 이지 우월성superiority 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교회에서 여성이 지도자로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셨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3 For Adam was formed first, then Eve. 14 And Adam was not deceived, but the woman being deceived, fell into transgression.

Please note carefully what I am about to say. The reason that God desires only male leadership within the church is due to CREATION and not CULTURE. Some will argue that Paul was just defending or representing the culture of his day. The first century was so unenlightened. It was positively barbaric when it came to the treatment of women. Our culture is so much better. We are living at a different time and with a much more refined sense of equality. We understand and appreciate the value and worth of women. Therefore we can just dismiss that Paul is saying. Wrong! God set this order or way of doing things in place from the beginning. To support this position Paul presents two arguments.

The first outlined in verse 13 is the argument from creation. This verse consisting of just six Greek words, states the basis of Paul's teaching regarding women in the church. His reference is to Genesis chapters 1 and 2. Those passages affirm God's creation of Adam as the first man. As we read in the Book of Genesis God created Adam and then noted that something was missing. Everything prior to this had been declared good. But not so after Adam. God recognised that it was not good that the man was alone (Gen 2:18). God rectified the situation by creating Eve from one of Adam's ribs. She was to be Adam's companion and helper.

As all women know the real reason that women were created second is the following. After God had created man He stepped back, scratched His chin and said, "I think I can do better than that."

Its a joke of course. It was man first, and then woman. This was the order, or the priority that God put in place from the beginning. Adam received his command and his authority from God, and Eve received her command and authority from Adam. This does not shift or change as culture varies.

The second argument Paul gives us relates to the fall. I am speaking here of the moment when human beings rebelled against God and sin entered the world. You are familiar with the story. Satan tricked or deceived Eve into eating the forbidden fruit. So Eve clearly sinned first, and yet she is NOT the one the bible blames for the fall of the human race. In Romans 5 we read.

Therefore, just as through one man sin entered the world, and death through sin, and thus death spread to all men, because all sinned. (Rom 5:12)

It does not say through one woman. Why is Adam the one who get the blame? Adam is responsible because there was a difference in authority. As the "head" of their relationship he bore the responsibility to ensure that they obeyed God and did what was right. Eve did not have this level of authority and so she is not held accountable. This same principle applies today. The buck stops with

the person in ultimate charge or authority. If a company goes bankrupt the CEO, not the assistant is held accountable. Paul is reminding us that God's created order has man as the head of the church and family.

Some have tried to extrapolate from this the idea that Paul is saying that women are more spiritually gullible than men. It may be true to say that generally speaking, women are more easily swayed by emotion. And by contrast men tend to be more logical and dispassionate. However it is a generalisation, we can all point to times when men have been deceived.

Let us conclude our study for today with the next verse.

**13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14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제가 할 말을 주의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남성 리더십만을 하라하시는 이유는 문화 CULTURE 가 아니라 창조 CREATION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단지 당시의 문화를 대변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1 세기는 너무나 마가해서 여성을 대하는 방식이 너무 아만적이었어. 하지만 오늘날 문화는 훨씬 진보했어. 우리는 다른 시대에 살고 있고 훨씬 더 세련된 평등 의식을 가지고 있지. 우리는 여성의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해. 그러므로 바울의 말은 그냥 무시해도 돼. 그런 주장은 틀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이러한 질서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바울은 두 주장을 제시합니다.

13 절에 제시된 첫 번째 주장은 창조입니다. 단 여섯 헬리어Greek 단어로 이루어진 이 구절은 교회 내에서 여성의 자유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의 근거입니다. 바울은 창세기 1 장과 2 장의 구절들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첫 번째 인간으로 창조하셨음을 확증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 이전의 모든 창조는 좋았다고 선언하셨으나, 아담을 창조한 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 □□ □□□ □□□□□ (창세기 2:18). 하나님은 아담의 갈버뼈 하나에서 하와를 창조하셔서 그 상황을 해결하셨습니다. 하와는 아담의 동반자이자 돕는 배필이 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여성들은 여성이 두 번째로 창조된 진짜 이유를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신 후, 뒤로 물러나 턱을 굽적이며 말씀하시길 "흠 □ □□□□ □□□□ □□ □□□□ ."

이 말은 물론 농담입니다. 창조 순서는 □□□□□□□□, 그 다음이 여자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정하신 순서, 혹은 우선순위였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과 권위를 받았고,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명령과 권위를 받았습니다. 문화가 변한다고 해서 이 진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두 번째 주장은 타락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가 세상에 들어온 순간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 □□ □□□ □□ □□□□□ . 따라서 하와가 먼저 죄를 지었지만, 성경이 인류의 타락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그녀가 아닙니다. 로마서 5 장에서 기록하길

그러므로 한 □□ one man 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 죄를 지었으므로 □□□□ 모든 □□□□□ 이룩했니라 (롬 5:12)

한 여자로 말미암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아담이 책임을 져야 합니까? 아담에게 책임이 있는 이유는 권위의 소재 때문입니다. 아담은 하와의 관제에서 "머리head"로서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옳은 일을 하도록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하와는 그러한 권위가 없었기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에도 적용됩니다. 권위를 가진 최종 책임자가 책임을 집니다. 회사가 파산하면 비서가 아니라 CEO 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교회와 가족의 머리는 남자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여성이 남성보다 영적으로 더 속기 쉽다라고 주장합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이 더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남성은 좀더 논리적이고 냉정한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화일 뿐, □□□□ □□□ □□□□□□ □□□ □□□□□ .

다음 구절로 오늘의 공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15 Nevertheless she will be saved in childbearing if they continue in faith, love, and holiness, with self-control.

We end our section today with Paul giving women a piece of positive news. Finally you might say. It may seem that they are in a weaker position to men. That they are destined to always be somewhat inferior. This is not actually the case, but you get my point. Paul tells women that they have a special and unique ministry given to them by God.

This verse has been handled in a number of ways by interpreters. Many scholars regard it as being one of the most difficult passages to understand in the New Testament.

On the surface, it could be taken to mean that if a woman continues in faith, love, and holiness, with self-control, that God will bless her with survival in childbirth. This would have been quite a blessing in the first century. Many women died during child-birth.

I don't however think this is what Paul means. Such a teaching leaves too many unanswered questions. Is this an absolute promise? Will all women who meet this criteria survive? What about godly women who have died in childbirth? What about sinful women who have survived childbirth? Perhaps the strongest argument against this view is that it seems like a reward for good works. This runs counter to what the bible teaches about salvation.

8 For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and that not of yourselves; it is the gift of God, 9 not of works, lest anyone should boast. (Eph 2:8-9)

Others claim that it means that Godly women will be spared the pain of labour in child-birth? All the women listening who have had children know that this is not the case.

What I think Paul is really saying here is that women have been given a special task by God.

That task is to bring children into this world. Let me state for the record that there is no more important job. Given the current massive, and most likely catastrophic decline in birth rates around the world, and especially in Korea we ought to be driving home this point.

So Paul is urging the women in Ephesus to stop seeking after roles and authority (teachers and pastors) in the church that God has not ordained for them to have. Instead they should embrace the beautiful and vital task of bringing new life into this world. If, like me you were raised by a good and godly mother you know how crucial they can be. They are instrumental in raising the next generation of believers. Being a wife and mother is not a secondary pursuit behind having a job or career. It is a pursuit of unimaginable value. So Paul is encouraging the women in Ephesus to look to this and celebrate the role God had assigned them.

Let me end by stating what should be an obvious point. Women play a vital part in Christ's church. The continued success of the church rests upon them. Just look at the amazing things women do in our church. Often this goes unnoticed and unappreciated. This is wrong. We ought to regularly acknowledge all they do. This church would be much poorer without their contribution. So may none of us ever look down upon, or try to diminish the importance of women in the church. May we never think that just because they are not called to lead that they are of less value or merit.

Thank you Lord for the women you have blessed us with. May we love and respect them in a way that pleases you.

Next week, Lord willing we will look at what Paul has to say regarding the appointment of pastors and deacons.

15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기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여성들에게 긍정적인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드디어 여성들이 남성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항상 어느 정도 열등하게 운명지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요점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여성들에게 주신 특별하고 고유의 사역이 있다고 말합니다.

주석가들은 이 구절을 여러 방식으로 해석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구절을 신약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 중 하나로 여깁니다. 표면적으로는, 여성이 믿음과 사랑과 기쁨으로 정숙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출산 시 그들의 생존을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1세기에는 이것이 큰 축복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출

하지만 저는 바울이 뜻하는 바가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해석은 너무나 많은 의문을 남깁니다. 이것이 절 대적인 약속이었을까요? 이 기준을 충족한 모든 여성이 살아남았을까요? 출산 중에 죽은 경건한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출산을 견뎌낸 죄 많은 여성들은요? 이러한 해석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론은 그것이 선행에 대한 보상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이 구원에 대해 가르치는 것과 반대됩니다.

**8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 행위에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엡 2:8-9)**

어떤 사람들은 경건한 여성들이 출산의 고통을 면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아이를 낳아 본 모든 여성들은 이것이 사실 이 아님을 압니다.

제 생각에 바울이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여성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바로 아이들을 이 세상에 데려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특히 한국처럼 출산율이 엄청나게, 아마도 재앙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여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교회 내 역할과 권위(교사와 목사)를 추구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반면 그들은 이 세상에 새 생명을 데려오는 아름답고도 중요한 사명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처럼 선하고 경건한 어머니 밑에서 자란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아실 것입니다. 그들은 다음 세대 신자들을 양육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내와 어머니가 되는 것이 직업이나 경력 다음에 오는 부차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상상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여성들에게 이 점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역할을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분명한 요점을 언급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성들은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회의 지속적인 성공 여부는 여성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성들이 하는 놀라운 일들을 보십시오. 이러한 일들은 종종 간과되고 제대로 평가받지 못합니다.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성들이 하는 모든 일을 자주 인정해야 합니다. 여성들의 기여가 없었다면 이 교회는 훨씬 더 가난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 누구도 교회에서 여성을 알아보거나 그들의 중요성을 깎아내려서는 안 됩니다. 여성들이 지도자로 부름받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의 가치나 공로가 낮다고

주님, 여성들로 인해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바울이 목사와 집사의 임명에 관해 한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Lessons to learn

I have drawn two lessons from today's teaching.

저는 오늘의 가르침에서 두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1 In and out, are we properly focused?

I remember periodically at high school there being uniform enforcement days. On such day teachers would be told to check student's uniforms. They would check to see that we were wearing the right coloured socks. That the girl's skirts were not too short. And that we were had fastened our neck ties with an appropriate knot.

Some churches have followed a similar approach when it comes to assessing what people wear. Rules have been posted, and church goers are assessed as they enter the church building. I rather think that such legalism is missing the mark. You will note that in today's passage Paul does not provide a dress code. He does not provide specifics surrounding what or what isn't appropriate. This is because it is moderation that is his concern. Paul wanted people to dress in a respectful and appropriate way.

In reality though Paul's real interest lay in what was coming from a person's heart. Someone who really wanted to honour God would not come to church dressed inappropriately. How could we ever imagine God would be pleased by us wearing revealing or ostentatious clothing.

Someone who respects and cares about others would not need to dress to impress, or wear provocative clothing. How could we ever think that wearing clothes or accessories that made us the centre of attention is pleasing to God.

So the real take-away is this. Where is our focus? Are we fixated upon ourselves? Do we do what we do because it satisfies our own flesh? Or are we living in a way that puts God at the centre. Are we making everyday decisions by first asking what would make our Heavenly Father happy. I certainly hope that this is the case.

1. 우리는 인품으로 올바르게 집중하고 있나요?

고등학교 시절 종종 교복 점검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교복을 점검했습니다. 양말 색깔이 맞는지, 여학생 치마가 너무 짧지 않은지, 넥타이를 제대로 매었는지도 확인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비슷한 방식으로 사람들의 복장을 평가합니다. 규칙을 제시하고, 신도들이 교회 건물에 들어갈 때 점검합니다. 저는 그러한 율법주의가 핵심을 놓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복장 규정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적절하고 아닌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절제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예의 바르고 적절한 방식으로 옷을 입을 것을 권합니다.

□□□□ □□ □□ □□□□□□ □□□□□□□□□□ . 진정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라면 교회에 부적절한 옷을 입고 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출이 심하거나 과시적인 옷을 입는 것을 과연 기뻐하실까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람은 남에게 잘 보이려고 옷을 입거나 도발적인 옷을 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관심을 집중하도록 하는 옷이나 액세서리를 착용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요?

그러니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우리 자신에게 고정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육신을 만족시키기 위해 행동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중심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결정을 내릴 때 먼저 무엇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할지 묻습니까? 저는 이것이 사실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 Pleasing God

Many today find what Paul has to say here regarding women to be deeply offensive. I am sure that in some churches today's passage is bypassed quickly, or else skipped over entirely. What Paul says

really goes against what is being pushed in the west. I deliberately emphasised several times that this is not Paul's view. This is what God wants. So if any of the things that we looked at today annoyed or offended you please think about it from the following perspective.

As followers of Christ we are called to love and obey our master. This means following His commands. Doing what He tells us because He knows best. Not following His commands begrudgingly, or reluctantly but joyfully and willingly submitting to them because in doing so we bring glory to God and please Him.

This means women submitting to the headship of their husbands. In practice this means loving, supporting and respecting their leadership of the family even if they may not always lead well. Not trying to usurp authority or belittling their efforts.

It also means submitting to the headship of our leaders in the church and in the nation. Again, from time to time we may disagree with their decisions. But we are to come under their authority and perhaps respectfully challenge them when necessary. May we all strive to live lives that please God by doing what He commands. This includes joyfully submitting to God's desired order of things.

2 하나님을 기쁘게 함

오늘날 많은 □□□ 바울이 여성에 대해 한 말을 매우 불쾌하게 여깁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오늘 본문을 무시하거나 아예 건너뛰기도 합니다. 바울의 말은 오늘날 서구 □□□ 강조하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울의 견해가 아님을 의도적으로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 □□ 중 어떤 부분이 마음에 거슬리거나 불쾌하셨다면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우리는 주인을 □□□ 순종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는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가장 잘 아시기에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투덜거리며, 혹은 마지못해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기꺼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여성이 가장인 □□□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 가정을 항상 잘 이끌지는 못할지라도 가장으로서의 그들의 역할을 □□□ 지지하며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권위를 빼앗거나 그의 노력을 깎아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지도자와 국가 지도자들의 지위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때때로 그들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권위 아래 있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정중하게 그들에게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 □□ 위해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창조주의 질서에 기쁘게 순종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